

쌍봉사 기단부 발굴조사개보 (雙峰寺 基壇部 發掘調査概報)

趙 由 典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官>

尹 根 一

<文化財研究所 學藝研究士>

유적(遺蹟)의 위치(位置)와 현장(現狀)

쌍봉사(雙峰寺)는 화순군(和順郡)으로부터 약(約)34km 지점(地點)인 이양면(利陽面) 증리(甑里)에 소재(所在)하는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문성왕(文聖王)(839~856 A.D)과 경문왕(景文王)(861~874 A.D) 사이에 신라(新羅) 구산(九山) 선문중(禪門中)의 일문(一門)인 사자산문(獅子山門)의 개산조(開山組)인 철감선사(澈鑿禪獅)가 창건(創建)한 것으로 전(傳)하고 있는 사찰(寺刹)이다.

현존(現存) 유적(遺蹟)으로는 철감선사탑(澈鑿禪獅塔)과 대웅전(大雄殿) 탑비(塔碑)가 있는데 특(特)히 대웅전(大雄殿)이라고 하는 삼층(三層) 목조건물(木造建物)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건립(建立)된 것으로 실제로는 목탑양식(木塔樣式)에 가까운 건물(建物)이다. 이 건물(建物)의 규모(規模)는 정면(正面) 1칸(1間) 측면(側面) 1칸(1間)으로 총(總)높이는 40척(尺)이나 되었다.

기단(基壇)은 얕으막하며, 이 위에 삼층(三層)으로 된 목조건축(木造建築)인 대웅전(大雄殿)이 1984年 4月 3日 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소실(燒失)된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생전(生前)의 건물(建物)은 없고, 타다 남은 4개(個)의 기둥 밖에 서 있지 않았다.

기록(記錄)에 의하면 각층(各層) 기둥위에는 창방(昌枋)과 평방(平枋)을 짜 돌리고 두공(斗拱)을 배치옥개(配置屋蓋)를 받고 있다. 이 건물(建物)은 1962年의 해체수리(解體修理)를 한 것이다.

쌍봉사(雙峰寺) 대웅전(大雄殿) 조사(調査)

쌍봉사(雙峰寺) 대웅전(大雄殿)(3층목탑(三層木塔))은 84年 4月 3日 소실(燒失)로 인하여 복원(復元)에 앞서 기단구조(基壇構造) 조사(調査)를 하기에 이르렀다.

우선(于先) 쌍봉사(雙峰寺)를 처음 찾았을때 화재(火災)로 소실(燒失)된 대웅전(大雄殿)을 보았을때 첫인상이 담담한 심정이었다. 일단 준비해간 발굴(發掘) 장비를 풀어 놓고 사찰(寺刹) 주위(周圍)를 돌면서 대부분이 건물(建物) 초석(礎石)과 흩어러진 기왓장들이 여기 저기 있었다.

현(現) 쌍봉사(雙峰寺)의 산세(山勢)를 볼 것 같으면 앞 뒤 축(軸)보다는 좌(左), 우측(右)으로 건물(建物)이 더 많이 있으리라 것을 추측(推測)하였다. 이 사찰(寺刹)의 주변(周邊)을 살펴보면 남(南)으로는 대웅전(大雄殿)이 위치(位置)하고 있고, 북편(北便)으로는 중조산(中條山)을 뒤로 한 극락전(極樂殿) 건물(建物)이 있는데 전후방향(前後方向)의 축(軸)을 보면 거의 여유가 없는 지형(地形)이다. 극락전(極樂殿)과 대웅전(大雄殿)은 축대(築臺)가 1.5M로 높게 처리(處理)가 되었으며, 그 밑에 대웅전(大雄殿)(3층목탑(三層木塔))이 있다. 또 극락전(極樂殿)과 대웅전(大雄殿)사이 우측(右側)에 1968년에 재건(再建)한 명부전(冥府殿) 건물(冥府殿)이 있고, 1970년에 복원(復元)한 요사제(寮舍齊)가 있다.

쌍봉사(雙峰寺) 연혁(沿革)

고려(高麗) 문종(文宗) 22년(1068년)에 소성(紹聖) 혜조국사(慧照國師)가 창건이후(創建以後) 처음으로 중창(重創) 하였는데 당시(當時)의 건물총수(建物總數)는 48동(棟)이나 되었다.

그 후 이조(李朝) 세종(世宗) 20년(1428년)에 전라(全羅) 관찰사(觀察使) 김공방(金公倣)의 대시주(大施主)로 세번째 중창(重創)을 하였으며, 세조(世祖) 14년(1468년)에는 경내(境內)에 세조대왕(世祖大王) 원당(願堂)과 현(現) 증리(甌里)에 서원(書院)을 세우고 사방(四方)30 리(里)에 달하는 불량답(佛糧沓)을 확보하였다.

성종(成宗) 10년(1479년)에 백련암(白蓮庵)과 월봉선사부도(月峰禪師浮屠)를 제자(弟子) 구공(邱空)이 조성(造成)하였고, 중종(中宗) 6년(1511년)에 당시 주지(住持) 혜공화상(惠空和尚)이 서부도(西浮屠)를 중창(重創)하였으며, 선조(宣祖) 10년(1577년)에 주지(住持) 선종대선사(禪宗大禪師)가 부도암(浮屠庵)을 동(同) 12년(1579년)에 주지(住持) 보정화상(普正和尚)이 서부도(西浮屠)를 각각(各各) 중창(重創) 하였다.

선조(宣祖) 26년(1593년)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건물(建物)의 태반(殆半)이 소실(燒失)되어 인조(仁祖) 6년(1628년)에 주지(住持) 요의선사(了誼禪師)가 대웅전(大雄殿)을 중창(重創)하였고, 동(同) 11년(1633년)에 주지(住持) 인환선사(印還禪師)가 팔상정화(八相幀畫) 조성(造成) 및 단청보수(丹青補修)를 하였으며, 동(同) 15년(1637년)에 주지(住持) 수인(守印)이 대법당(大法堂) 후불정화(後佛幀畫)와 명부전(冥府殿) 지장보살(地藏菩薩) 및 십왕정화(十王幀畫)를 조성봉안(造成奉安)하였다.

효종원년(孝宗元年)(1650년)에 주지(住持) 웅준화상(雄俊和尚)이 동부도(東浮屠) 초창(初創)하였고, 현종(顯宗) 8년(1667년)에 주지(住持) 선익화상(善益和尚)이 명부전(冥府殿) 십왕등상(十王等像)을 조성봉안(造成奉安)하였는데, 목재(木材)는 인도(印度)에서, 도료(塗料)는 중국(中國)에서 수입(輸入)하였으며, 숙종(肅宗) 3년(1677년)에 사천왕상(四天王像)을 중수(重修)하였다.)

숙종(肅宗) 5년(1679년) 동록(東麓)에 불묘(佛墓)를 매설(埋設)(동조비로 노사나 석가불상삼수(銅造毘盧 盧舍那 釋迦佛像三首))하였고, 동(同) 14년(1688년)에 주지(住持) 수열서사(守悅禪師)가 치원루(致遠樓)를 재건(再建)하였으며, 동(同)16년(1690년)에 주지(住持) 청일선사(淸日禪師)가 대웅전(大雄殿)을 중수(重修)하였다.

동(同) 20년(1694년)에 극락전(極樂殿) 아미타불(阿爾陀佛) 관세음(觀世音) 대세지보살상(大勢至菩薩像)과 삼층전(三層殿) 석가불(釋迦佛) 가섭등(迦葉等) 자상(者像)을 조성봉안(造成奉安)하였고, 경종(景宗) 4년(1724년)에 주지(住持) 치현화상(致玄和尚)이 삼층전(三層殿)을

중수(重修)하였으며, 영조(英祖) 16年(1740年)에 주지(住持) 최사화상(最森和尚)이 백련암(白蓮庵)을 중수(重修)하였다.

동(同) 18年(1712年)에 주지(住持) 시민화상(神敏和尚)이 삼청(三清)을 중창(重創)하였고, 동(同) 37年(1761年)에 주지(住持) 일규화상(一奎和尚)이 서부도(西浮屠)와 동부도(東浮屠)를 중창(重創)하였으며, 동(同) 50年(1774年)에 불유청(佛油廳) 상경청(上京廳) 잡물청(雜物廳) 삼보청(三補廳) 본전청(本箋廳) 등(等)을 건립(建立)하였다.

순조(純祖) 2年(1802年)에 우철화상(禹轍和尚)이 쌍봉사기념합록(雙峰寺記念合錄)을 편찬하였고, 광무(光武) 6年(1902年)에 주지(住持) 벽운화상(碧雲和尚)이 칠성산신정화(七星山神幀畫)를 조성봉안(造成奉安)하였으며, 1911年 왜정치하(倭政治下) 31본산제도시(本山製度時) 제(第) 18교구말사(敎區末寺)로 되어 있다.

1919年 주지(住持) 효해화상(曉海和尚)이 신중정화(神衆幀畫)를 봉안(奉安)하였고, 1935年에 오백나상(五百羅像)을 백양사(白洋寺)로 이봉(移奉)하였다. 그리고 1957年에 철감국사(澈鑿國師) 사리탑(舍利塔)과 탑신(塔身)을 재건(再建)하였다.

- 1962年 대한불교(大韓佛敎) 조계종(曹溪宗) 통합종단(統合宗團) 第21敎區(교구) 송광사(松廣寺) 말사(末寺)로서 삼층탑(대웅전)(三層塔(大雄殿))을 중수번와(重修翻瓦) 하였으며,
- 1968年 명부전(冥府殿)터에 재건(再建)하였다.
- 1970年 해체복원(解體復元)
- 1970年 요사제복원(寮舍齊復元)

쌍봉사조사경위(雙峰寺調查經緯)

84年 7月 3日 흐림

오전(午前) 10시(時)에 서울 터미널을 출발(出發)하여 광주(光州)에 14시 30분 도착(到着)하였다. 도착후(到着後) 진라도청(全羅道廳)에 들러 문화과장(文化課長)을 만나 조사(調査)에 관(關)한 논의(論議)를 한 후 화순군청(和順郡廳)으로 갔다. 화순군청(和順郡廳)에서 공보실장(公報室長), 공보계장(公報係長)과 인사(人事)를 나누고 마이크로 버스에 편승하여 현장(現場)인 쌍봉사(雙峰寺)에 17시 20분에 도착(到着)하여 현장(現場)을 둘러보고 가지고 간 발굴조사(發掘調査)에 필요(必要)한 장비(裝備)를 요사채에 옮겨 놓고 스님과 의논(議論)을 하였다.

84年 7月 4日 맑음, 비

쌍봉리(雙峰里) 면장(面長)을 예방(禮訪)하고 조사(調査)하는데 필요(必要)한 인부(人夫) 관계(關係)를 협조(協助)하였는바 인부(人夫)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면장(面長)한테 부탁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새마을 지도자를 만나 잘 부탁을 하였다. 오후(午後)에 우천(雨天)으로 인하여 작업(作業)을 못하였다.

84年 7月 5日 비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비가 계속와서 조사(調査)는 못하고 필요(必要)한 도구(道具)를 정비(整備)하고 쉬었으나 비는 계속내리고 있어 걱정스럽다.

84年 7月 6日 비

다행(多幸)히 작업인부(作業人夫) 11명(明)을 면장(面長) 수배를 했다는 연락이 와서 걱정은 덜었다.

작업(作業)에 앞서 인부들을 소집하여 조사(調査)에 대한 예비지식을 알으켜 주고 주변(周邊)에 화재로 인해 지저분한것부터 정리(整理)하기로 하였다.

정리(整理)를 하는데는 지개로 운반하기는 무리가 될 것 같아 경운기와 지개로 같이 실어 내기로 하였다. (사진1)

나머지 직원들은 실측에 필요(必要)한 실을 감고 작업(作業)을 하기 시작하였다.

84年 7月 7日 흐림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북편(西北便)에 쌓여 있는 토양(土壤)과 목부재(木部材)를 제거(除去)하기에 앞서 촬영(撮影)을 하고, 여기저기 흠으러져 있는 것을 한군데 모아 놓았다. 왜냐하면 건물(建物)을 복원(復原)할때 필요(必要)할런지 몰라서 목부재(木部材), 목판(木板) 같은 것은 따로 치워 놓았다.

84年 7月 8日 흐림

추정(推定) 대웅전(大雄殿) 축대(築臺)를 평판(平板) 실측(實測)을 하였는데 전체(全體)의 길이는 약(約)20.8m가 되고, 높이는 1.5m 가 된다. 이 축대(築臺)는 화강암석(花崗岩石)으로 된 지대석(地臺石)이 있는데 높이는 20cm이고 길이는 100cm되며, 면석(面石)은 대략 90×60cm 되는 화강석(花崗石)을 사용(使用)하였으며, 지대석(地臺石)이 지하(地下)로 15cm 정도 묻혀 있었다.

또 경운기와 지개로 계속 쌓여 있는 토양(土壤)을 제거(除去)하였다.

84年 7月 9日 흐림

서북편(西北便)에 쌓여 있는 토양(土壤)을 제거(除去)하고 오후(午後)부터는 정리작업(整理作業)에 들어갔으며, 일부는 탑지(塔址) 내부(內部)에 있는 흙을 제거(除去)한 후 마루바닥에 타다 남은 판재(板材)를 제거(除去)한 후 촬영(撮影)을 하였다. (사진2)

84年 7月 10~11日 비

평판(平板) 실측(實測)을 계속하였으며, 추정(推定) 대웅전지(大雄殿址)에 첫 시굴(試掘)(調査)를 하였다. 또 대웅전지(大雄殿址)에 접색갱(接索坑)을 설치(設置)한 곳에 표토(表土)부터 조금씩 내려갔는데 각란층(覺亂層)이 보이기 시작(始作)하였다. 초석(礎石)이 있는 주변(周邊)에는 10~20cm 내외(內外)의 역석(礫石)들이 노출(露出)되고 있었다. 간혹 조선시대(朝鮮時代) 와편(瓦片)이 출토(出土)되곤 한다.

84年 7月 12日 흐림, 비

기단(基壇) 주변(周邊)에 탐색갱(探索坑)을 남(南)으로부터 TR1, TR2, TR3, TR4를 설치(設置)하여 작업(作業)을 시작(始作)하였고, 오후(午後)부터는 작업(作業)을 중지(中止)하고 출토(出土)된 와당탁본(瓦當拓本)을 하였다.

84年 7月 13日 흐림, 맑음

추정(推定) 대웅전지(大雄殿址)에 설치(設置)한 탐색갱(探索坑)에서는 대략 초석(礎石)들이 노출(露出)되고, 주간(柱間)의 거리는 2.5m가량 된다. 그래서 확인(確認)이 된 것은 전면(前面) 6간(間)은 거의 확실한 생각이 들지만, 측면(側面) 3간(間)은 의문(疑問)이 있지만 적심(積心)의 흔적(痕跡)이 나타나기 때문에 3간(間)으로 보았다. (사진3)

극락전(極樂殿)에서 보았을 때 추정대웅전(推定大雄殿) 또는 현재(現在) 나타나는 초석(礎石)이 있는데 앞쪽으로는 기단(基壇)이 있어야 되는데 확인(確認)한 결과 기단(基壇)의 흔적(痕跡)은 보이지 않고 바로 축대(築臺)가 걸리기 때문에 혹시 축대(築臺)를 후대(後臺)에 축조(築造)한 것이 아닌가도 생각이 든다.

또 서편(西便)에서 2번째 초석(礎石)밑에서는 이조시대(李朝時代) 청자편(靑磁片)이 출토(出土)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중기후(朝鮮重期後)의 건물(建物)인 것으로 생각된다.

84年 7月 14日 맑음

탑지내(塔址內) 기단부(基壇部) 조사(調查)를 하었는데 동서(東西)로 1.5m의 폭(幅)으로 탐색갱(探索坑)을 설정(設定)한 곳을 작업(作業)하였는데 기단내(基壇內) 깔았던 전(塼)을 제거(除去)하니 그 밑에서 원래(原來)의 바닥에 깔았던 바닥전(塼)이 노출(露出)되었다. (사진 4)

그리고 전(塼) 밑에는 안정(安定)된 토(土)와 냇돌들이 전체적(全體的)으로 깔려 있었다. 기단(基壇) 중앙(中央)에서 서편(西便)으로 흙을 제거(除去)해 나갔다. 그랬더니 자연석(自然石)으로 통적심(積心)을 한 적심석(積心石)들이 깔려 노출(露出)되고 있었다.

또 추정(推定) 대웅전지(大雄殿址)에서는 실측(實測)을 하기 위한 작업(作業)을 하였으며, 오후(午後) 4時 30分경(頃)에는 문화재위원장(文化財委員長) 진홍섭(秦弘燮), 단장(團長) 조유진(趙由典) 연구관(研究官) 등(等)이 현장(現場)을 방문(訪問)하여 조사(調查)에 따른 의논(議論)을 하였다. 지시사항(指示事項)은

- 동서편(東西便)요사채까지 연장(延長) 확인(確認)
- 기단부(基壇部) 현상태(現狀態)에서 적심석(積心石)을 들어내고 바닥까지 확인(確認)할 것
- 대웅전지(大雄殿址) 축대(築臺) 동편연장(東便延長) 확인(確認)
- 철감선사부도(澈鑿禪師浮屠) 탁본(拓本)

84年 7月 15~17日 맑음

대웅전(大雄殿) 기단내(基壇內) 소토(燒土)를 제거(除去)하고 난 후에 1962年度에 복원(復元)할 때 깔은 부전(敷塼)이(50×33×3cm) 깔려 있는 것을 확인(確認)하였다.

또 남문지(南門址) 앞쪽 입구(入口)로 탐색갱(探索坑)을 연장(延長)해서 (24.10m×4.5m) 설치(設置)하였다.

설치(設置)한 탐색갱내(探索坑內)에서 표토(表土)를 10cm 정도 제거(程度除去)하니 자연석(自然石)으로 된 부석(敷石)이 노출(露出)되었다. 범위는 폭 2×4.3m 이다.

84年 7月 8~19日 맑음

탑지(塔址)앞에 노출(露出)된 유구(遺構)를 실측(實測)하였으며, 요사채(寮舍體) 앞쪽으로 탐색갱(探索坑)을 연장(延長)하였는데 유구(遺構)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朝鮮時代) 와편(瓦片)이 약간씩 출토(出土)되었다.

84年 7月 20~23日 맑음

대웅전(大雄殿) 서편(西便) 중턱에 있는 철감선사부도(澈鑿禪師浮屠)를 탁본(拓本)하였으며, 출토(出土)된 와당(瓦當)을 탁본(拓本)을 하고 유물실측(遺物實測)을 하였다.

84年 7月 24日 맑음

조사시(調査時) 출토(出土)된 유물(遺物)인계차 광주박물관(光州博物館)에 가서 이중철 실장과 의논(議論)을 하였다.

84年 7月 25日 맑음

쌍봉사(雙峰寺)에서 800m 떨어진 진입로(進入路) 좌측(左側)에 부도(浮屠) 4개(個)가 있어 조사(調査)를 하고 촬영(撮影)을 하였다.

또한 주위(周圍)에 산 중턱에 있는 조선시대(朝鮮時代) 요지(窯址)가 1.6km 떨어진 곳에 칩덩쿨과 잡초(雜草)가 우거져 있어서 주변(周邊) 지표조사(地表調査)만 확인(確認)하고 흠으러져 있는 자기파편(磁器破片) 및 소토(燒土)들이 있었다. 자기파편(磁器破片)이 산재(散在)해 있는 규모(規模)는 약(約) 500평(坪)정도 된다. (사진 5)

84年 7月 26~28日 맑음

원상대로 복원 하였으며, 유물(遺物)은 광주박물관(光州博物館)에다 이관(移管)시키고 오후(午後)에 서울로 출발(出發)하였다. (사진 6)

1) 기단부조사(基壇部調査)(도면1,2)

기단부(基壇部) 조사(調査)를 하기 앞서 주변(周邊)에 소실(燒失)된 건물(建物)의 부재(部材), 기와편(片), 벽체(壁體) 등(等)이 어지럽게 흠으러져 있는 상태(狀態)를 먼저 촬영(撮影)을 하고 기록(記錄)을 하였다.

먼저 평판실측(平板實測)을 하고나서 동서남북(東西南北)에 기단부(基壇部) 면석(面石)을 걸리게 하여 장(長) 5m, 폭(幅) 1.5m로 4곳에 탐색갱(探索坑)을 설치(設置)하였다. 탐색갱(探索坑)을 편리상 남(南)을 TR1, 동(東)을 TR2, 북(北)을 TR3, 서(西)를 TR4로 정(定)하고 유구(遺構) 확인(確認) 조사(調査)를 시작(始作)하였다.

표토(表土)부터 10~15cm씩 제토(除土)해 나갔다. 그런데 면석(面石)에서 80~100cm 떨어져 석열(石列)이 노출(露出)이 되었으나 유구(遺構)와는 무관한 것이 었고, 조선시대(朝鮮時代) 와당편(瓦當片)들이 간혹 출토(出土)되었을 뿐 다른 것은 없었다.

기단(基壇) 내부(內部) 조사(調査)는 먼저 동편(東便) 계단(階段)이 있는 곳부터 하고, 동서(東西)를 같이 조사(調査)하였다. 3곳에 폭(幅) 1m로 설정(設定)하였는데, 일단 기단상면(基壇上面)에 노출(露出)되어 있는 무문전(無文塼)을 들어 내었다. 이 전(塼)은 1962年 중수(重修)시 복원(復元)한 것이고, 그 밑에는 10cm 두께로 황갈색(黃褐色) 사질토(砂質土)가 한 겹 깔려 있다. 황갈색(黃褐色) 사질토(砂質土)밑에 15cm 두께로(흑회색 점질토(土)) 있으며, 바로 밑에 원래(原來) 것으로 생각되는 무문전(無文塼)(35×33cm)이 깔려 있었다.

이 무문전(無文塼) 밑에는 황회색(黃灰色) 점질토층(粘質土層)이 35cm 두께로 하고 있으며, 서편(西便)쪽으로만 35×32cm크기의 돌이 중앙(中央)쪽으로 220cm까지 깔려 있고, 동

(東)쪽으로는 20×20cm되는 돌로 기단부(基壇部) 기초(基礎)를 통적심(積心)으로 한 것이 특이(特異)한 공법(工法)인것 같다. (사진7)

또 기단(基壇) 중앙(中央)에는 기단갑석면(基壇甲石面)에 거의 수평(水平)으로 65×25cm되는 자연석(自然石)을 놓고 그 밑부분에 10~20cm되는 력석(礫石)을 깔고 적심(積心)으로 채웠는데 꼭 적심석(積心石)으로 한 것 같다. 그 밑에서 통일신라(統一新羅)때의 것으로 보이는 와당편(瓦當片) 1점(點)이 출토(出土)되었다. 이 와당편(瓦當片)은 막새가 결실(缺失)되고 주연부(周緣部)만 붙어 있는 와당(瓦當)이다.

2) 기단남북(基壇南北) 단면조사(斷面調査)

현(現) 지표(地表)에서 얼마 안내려가 화강암석의 지대석(地臺石)(20×20cm)을 놓고, 면석(面石)(35×15cm) 위에 기단갑석(基壇甲石)(40×20cm)을 놓은 구조(構造)로 구축(構築)하였으며, 지대석(地臺石)은 5cm가량 면석(面石)보다 바깥으로 나오게 하고 그 위에 기단갑석(基壇甲石)을 얹어 처리(處理)를 하였다.

또 최종적(最終的)으로 기단부(基壇部)를 복원(復元)할때 사용(使用)한 전(塼)이 깔려 있는데 기단갑석(基壇甲石)과 수평(水平)이 되게 처리(處理)를 하였고, 그 밑(20cm)에 당초(當初)에 깔았던 무문전(無文塼)(35×33cm)이 확인(確認)되었다. 반대(反對)로 얘기하면 구지표(舊地表) 바닥에서 기단전체(基壇全體)를 통적심(積心)으로 처리(處理)하고 그 위에 황회색(黃灰色) 점토(粘土)를 35cm되게 깔은 후에 중앙부분(中央部分)인 곳에 심초석(心礎石)을 놓고 10~20cm의 력석(礫石)을 채웠다. 그리고 남북간(南北間)의 기단폭(基壇幅)은 약(約) 8cm가 된다.

기단(基壇) 남편(南便)에는 계단(階段)이 2단(段)으로 처리(處理)가 되었는데 계단(階段)은 지대석(地臺石)에서 남편(南便)으로 50cm 바깥으로 나와서 계단(階段)이 있고, 계단(階段)에서 3m 떨어져 부석(敷石)이 장(長)5m 폭(幅) 2m까지 노출(露出)이 되며, 표면(表面)은 반질반질하게 윤기가 나는 것으로 보아 당시(當時)에 많은 사람들이 이 곳을 찾아 왔다는 흔적을 알 수 있다.(사진 8)

기단(基壇) 북편(北便)으로는 1m 떨어져 력석(礫石)들이 몇 개씩 노출(露出)도나 유구(遺構)와는 관계(關係)가 없는 것 같다. 2.5m 떨어져 북편(北便)으로는 추정금당지(推定金堂址)가 있는데 축대(築臺)높이는 1.5m 장(長) 20.7m 되고 계단(階段)은 5단(段)으로 처리(處理)하였다.

기단부(基壇部) 위에 있는 초석(礎石)은 창건당시(創建當時)에 부전(敷塼)위에 초석(礎石)을 얹히도록 하고 그 밑에는 통적심석(積心石)을 하고 굵은 적심(積心)으로 채워 초석(礎石)을 방치(放置)하였다. 즉 원래(原來)의 초석(礎石)보다 25cm 정도(程度) 높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3) 추정금당지(推定金堂址) 조사(調査)

극락전(極樂殿) 앞 공지(空地)에 추정금당지(推定金堂址) 확인(確認) 조사(調査)를 위해 탐색갱(探索坑)을 설치(設置)하였다. 설정(設定)한 동서탐색갱(東西探索坑)(20m×1.5m)을 표토(表土)로부터 제거(除去)해 나갔다. 표토(表土)에서 30~50cm 밑에는 자연석(自然石)을 이용(利用)한 초석(礎石), 5개(個)와 주좌(柱座)가 있는 초석(礎石) 1개(個)가 확인(確認)되었다.

노출(露出)된 초석(礎石)간의 주간(柱間)거리는 약(約)2.5m로 되며, 중간(中間)에 초석(礎石)이 빠진것도 있다. 이 초석(礎石) 밑에는 50×20cm 크기의 천석(川石)으로 적심(積心)으로 채웠다. (사진10)

또 확인(確認)된 초석(礎石)의 크기는 110×80cm의 화강암(花崗岩) 석재(石材)로 되어 있다. 확인(確認)된 초석(礎石)의 주간(柱間)은 동서열(東西列)이 6간(間)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북편(北便)으로 명부전(冥府殿)이 있는 건물(建物) 옆에다 탑색갱(塔索坑)을 남북(南北)으로 연장(延長) 약(約)12m로 하였다. 이 쪽편(便)에는 초석(礎石)으로 하나도 없고 초석(礎石)에 채웠던 적심(積心)으로 보이는 것들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으나(사진 11) 확실(確實)한 것은 아니지만 자리가 초석(礎石)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남북열(南北列)도 적심(積心)의 흔적(痕跡)을 봐서는 3간(間)이 아닐까 생각되며, 주간(柱間)은 약(約) 2.5m가 아닌가 한다.

그리고 남북간(南北間)에서는 적심(積心)이 있는 곳에서 명문(銘文)이 있는 암기와 편(片)이 출토(出土)되었다.

추정금당지(推定金堂址) 조사(調査)에서 확인(確認)된 것은 정면(正面) 6간(間) 측면(側面) 3간(間)(?)의 건물(建物)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생각이 드는 것이다.

이상(以上)으로 볼때 쌍봉사(雙峰寺) 대웅전(大雄殿)은 북향(北向)한 건물(建物)로서 북(北)쪽으로 창건당시(創建當時) 보도시설(步道施設)을 하고 정면(正面) 1간(間), 측면(側面) 1간(間) 건물(建物)을 조성(造成)한 것으로 보이나, 조선중기(朝鮮中期) 이후(以後)에 들어와 이전(以前)의 기단(基壇)보다 약(約) 25cm 높혀 축조(築造)된 것으로 보이며, 건물(建物)의 성격(性格)은 대웅전(大雄殿)이 아닌 목탑지(木塔址)였음이 확인(確認)되었다.

출토유물(出土遺物)

쌍봉사(雙峰寺) 대웅전지(大雄殿址) 및 추정금당지(推定金堂址), 주변(周邊) 출토유물(出土遺物)은 숫막새 8점(點), 암막새 5점(點), 망와(望瓦) 2점(點), 암기와 3점(點), 특수와(特殊瓦) 1點, 석물(石物) 2點, 상감청자(象嵌靑磁) 1點, 이조청자편(李朝靑磁片) 1點, 청동원형(靑銅圓形) 장식구(裝飾具) 1點이 수습(收拾)되었다.

이 유물(遺物)들은 대웅전지(大雄殿址), 주변(周邊)에서 수습(收拾)된 것으로서 대부분이 조선시대(朝鮮時代) 유물(遺物)이 주(主)가 되며, 기단내부조사시(基壇內部調査時) 중앙부분(中央部分)에 위치(位置)하는 심초(心礎)로 생각되는 밑에서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유물(遺物)로 생각되는 숫막새 1점(點)이 출토(出土)되었다. 이 유물(遺物)들은 간단하게 설명(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숫막새(사진 12)

이 와당(瓦當)은 대웅전지(大雄殿址) 기단부(基壇部) 조사시(調査時) 중앙부(中央部)에 위치(位置)하는 지점(地點)에 중앙(中央)의 심초(心礎)밑에서 출토(出土)되었다.

그런데 이 와당편(瓦當片)은 막새부분이 탈락(脫落)되어 버리고 없으나 주선부(周線部)만 잔존(殘存)하며, 주선(周線)에는 연주문이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 것으로 보인다. 현(現) 크기는 15×2.7cm 가 된다.

숫막새(사진 13)

대웅전지(大雄殿址) 기단(基壇)된 주변조사(周邊調查)에서 수습(收拾)된 것으로 단판연화문(單瓣蓮花文)으로 파제(破提)이 심(甚)한 상태(狀態)이다.

자방(子房)은 결손(缺損)되어 알 수 없고, 화판내(花瓣內)에는 송실형(松實形)의 문양(文樣)을 시문(施文)하였으며, 주연부(周緣部)는 구획(區劃)을 짓기 위해 二조(條)의 동심원(同心圓)으로 돌출(突出)시켜 처리(處理)를 하였는데 이런 문양(文樣)은 조선시대(朝鮮時代) 건물(建物)에 사용(使用)한 와당(瓦當)으로 생각(生覺)된다. 현(現) 크기는 16×3cm 이다.

숫막새(사진 14)

이 와당(瓦當)역시 대웅전지(大雄殿址) 주변(周邊)에서 출토(出土)된 것으로 주연부(周緣部)는 전부(全部) 탈락(脫落)되고 없으며, 화판내(花瓣內)에 단판복엽(單瓣複葉)으로 문양(文樣)을 시문(施文)하였다.

그리고 자방(子房)은 화판(花瓣)보다 약간 높고 볼록하게 처리(處理)를 했고, 3엽(葉)으로 분할(分割)시킨 것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성행된 것으로 크기는 8×3cm이다. 또 연화(蓮花)는 마제형(馬蹄形)이며, 연판내(蓮瓣內)에 자엽 2개(子葉 2個)씩을 도드라지게 시문(施文)을 하였다.

숫막새(사진 15)

이 와당(瓦當)은 반파(半破)된 것으로 태토(胎土)는 정밀(精密)치 못하고 자방(子房)은 중앙(中央)에 조그맣게 돌출(突出)시키고 ○내(內)에 송실형(松實形)에 연화(蓮花)를 시문(施文)하고 외연(外緣)쪽으로는 1조(條)의 동심원(同心圓)을 돌리고 외연부(外緣部)에는 ▽형(形)으로 문양(文樣)을 돌렸다. 또 주연부(周緣部)는 소문(素文)으로 처리(處理)를 하였고 조선시대(朝鮮時代) 와당(瓦當)으로 생각되며, 크기는 17×3.8cm, 18×4cm이다.

숫막새(사진 16)

이 2점(點)의 와당(瓦當)은 대웅전지(大雄殿址) 주변(周邊)에서 출토(出土)된 것으로 조선시대(朝鮮時代)의 문양(文樣)을 모조(模造)한 것으로 판내(瓣內)에는 7엽(葉)으로 처리(處理)하고 사이사이에는 간엽(間葉)을 시문(施文)하였다.

숫막새(사진 17)

이 와당(瓦當)은 (사진 16)과 같은 조선시대(朝鮮時代) 와당(瓦當)으로 문양(文樣)은 같은 종류(種類)이다. 다만 판단(瓣端)의 끝이 펜촉같이 날카로운 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와범 자체(瓦範自體)도 나무로 사용(使用)한 흔적(痕跡)이 나타나고 있다. 크기는 14.6×2.5cm이다.

특수와(사진 17-1)

추정금당지(推定金堂址)에서 출토(出土)된 ○미편(尾片)으로 등 부분의 파편(破片)이다. 크기는 15×9cm인데 아마도 상단(上端)의 등 부분으로 추정(推定)된다.

암막새(사진 18)

① 대웅전(大雄殿) 주변(周邊)에서 출토(出土)되었으며, 파손(破損)이 심(甚)하여 일부(一部)만 잔존(殘存)하고 있는데 막새 전면(前面)에 양각(陽刻)으로 명문(銘文)이 적혀 있다. 이

명문(銘文)을 검토(檢討)하여 보면 자경(字徑)이 2×2cm나 된다. 양각(陽刻)된 명문(銘文)은 다음과 같다. 『병육(丙六) ..., 강희(康熙)..., 반주(飯主) □...』인데 여기에서 강희(康熙)는 원년(元年)이 1662년~1772에 해당되나 1600년대부터 1772년사이 즉 110년을 사용(使用)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제작(製作)을 한 것으로 추정(推定)할 수 있다.

② 이 와당(瓦當)은 아마도 대웅전지(大雄殿址)의 건물번와(建物翻瓦)를 할 때 근세(近世)에 제작(製作)한 것으로 생각되는 휘안문(暉眼文) 및 당초문(唐草文)을 함께 시문(施文)한 것 같다. 크기는 21.5×7.8cm가 된다.(사진 19)

③ 이 와당(瓦當) 역시 문양(文樣)은 ②와 같은 양식(樣式)의 문양(文樣)을 좌,우(左,右)에 대칭(對稱)이 되도록 양각(陽刻)을 하였고, 중앙(中央)에는 명문(銘文)이 있는 것 같았으나 잘 보이지 않고 있다. 크기는 23.2×12.2cm이다. (사진 20)

④ 이 와당(瓦當)은 1962년 구월(九月)에 보수(補修)할 때 제작(製作)하였던 것이다. 양(兩)쪽에 눈알을 박고 중앙(中央)에는 양각(陽刻)으로 「회랑보수(回廊補修) 一九六二年 九月」이라고 명문(銘文)을 넣었다. 크기는 29.5×11cm이다. (사진 21)

망와(望瓦) 2점(點)(사진 22,23)

① 이 와당(瓦當)은 대웅전(大雄殿) 주변(周邊)에서 출토(出土)되었다. 2점중(點中) 하나는 명문(銘文)만 양각(陽刻)으로 연호(年號)가 나타나 있고, 다른 하나는 귀면(鬼面)의 상(像)을 표현(表現)시켜 놓았다.

앞서의 망와(望瓦)하나를 종(縱)으로 명문(銘文)이 반대(反對)로 양각(陽刻)되어 있다.

「雍正 伍年 丁未三月□(옹정 오년 정미삼월□)」라는 연호(年號)가 있는데 이것은 1727년에 제작(製作)한 연대(年代)가 된다.

귀면(鬼面) 문양(文樣)을 시문(施文)하고 망와상단부분(望瓦上段部分)에 양각(陽刻)된 명문(銘文)을 보면 『乾隆 □十四□同三年 大祖監 庚等(건륭 □십사□동삼년 대조감 경등)』이고 좌측(左側) 하부(下部)에 『별좌원(別座元)』이라 되어 있다.

이 와당(瓦當)은 건륭(乾隆) 원년(元年)이 1736년~1795년 안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크기는 18×22cm 가 된다.

평와(平瓦) 3점(點)(사진 24, 25, 26)

대웅전지(大雄殿址) 주변(周邊)에서 출토(出土)되었으며, 평와(平瓦)등에 고기뼈의 문양(文樣)과 종(縱)으로 명문(銘文)을 반대(反對)로 찍어 놓았다.

이 명문(銘文)은 「里戶身日(이호신일)」라 하고 자(字)의 크기는 3.5×3cm이다. 또 다른 하나도 문양(文樣)은 또 같으나 『정(丁)』라 양각(陽刻)하여 찍어 놓은 것이다. 이들 와당(瓦當)은 조선시대(朝鮮時代)에 제작(製作)한 것 같다.

기타(其他)

청동제반구형장식구(靑銅製半球形裝飾具) 1점(點)(사진 27)

대웅전 주변(大雄殿 周邊)에서 출토(出土)되었으며, 청동제품(靑銅製品)으로 반구형(半球形)으로 표면(表面)에는 6개(個)의 연화(蓮花)를 조각(彫刻)하였고, 중앙(中央)에는 타물(他物)을 꽂을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져 있다. 용도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장식용(裝飾用)으로 한 것만은 틀림이 없다. 크기는 4.4×1.2cm이다.

상감청자향로(象嵌靑磁香爐)(사진 28)

이 유물(遺物)은 대웅전지(大雄殿址) 앞 부석(敷石)이 노출(露出)되는데에서 출토(出土)되었다.

파손(破損)은 되었으나 복원(復元)하면은 완형(完型)에 가까우며 전체적(全體的)인 기형(器形)은 아가리쪽이 넓으며, 밑으로 내려 오면서 훌쭉해지고 그 밑으로는 안정감(安定感)이 있도록 대족(臺足)이 달려 있다. 소위 구연부(口緣部)에는 덮개를 덮을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있고, 동체(同體) 상단(上段)에는 보상화문(寶相花文)을 상감(象嵌)시켰으며, 중앙부(中央部)에는 2조(條)의 동심원(同心圓)을 상감(象嵌)시키고 내(內)에는 국화문(菊花文)을 장식(裝飾)하였으며 저부(底部)쪽에는 연화(蓮花)를 돌아가며, 상감(象嵌)시킨 향로(香爐)로서 구연외(口緣外)쪽으로는 귀면문양(鬼面文樣) 3개(個)를 조각(彫刻)하였다. 크기는 9×9.2cm이다.

이청자편(李靑磁片) 1점(點)(사진 29)

이 유물(遺物)은 극락전(極樂殿) 앞 건물지(建物址) 확인(確認) 조사(調查)를 위하여 조사(調查)하던 중 노출(露出)된 초석(礎石)밑 적심석(積心石) 부근에서 구연부(口緣部)가 파손(破損)된채로 떨어져서 출토(出土)되었다. 크기는 4.5×12.5cm 이다.

와제품(瓦製品) 1점(點)(사진 30, 31)

맷돌과 연화대석(蓮花臺石)이 주변(周邊)에서 수습(收拾)되었다. 맷돌은 화강석(花崗石)에다 댐이 되게 제작(製作)을 하여 곡물을 부수는데 사용(使用)한 것이며, 연화대석(蓮花臺石)은 반파(半破)되었으며, 현(現) 상태(狀態)에는 연판(蓮瓣)을 조각(彫刻)하였고, 그 윗 부분(部分)에는 축이 있어 대석(臺石)위에 타물(他物)을 끼울수 있도록 처리(處理)를 한 것이다. 크기는 19×9.1cm이다. 아마도 이런 석물(石物)은 쌍봉사(雙峰寺) 주변건물내(周邊建物內)에 안치(安置)했던 것 같다.

쌍봉사(雙峰寺) 칠감선사탑(澈鑿禪師塔)(사진 32,33,34,35,36)

이 칠감선사탑(澈鑿禪師塔)은 통일신라시대(統一新羅時代)의 목조건물(木造建物)이 없는 오늘날에 있어서 당시의 목조건물(木造建物)을 연구(研究)하는데 중요한 자료(資料)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탑(塔)의 형식(形式)은 팔각원당형(八角圓堂型)이며, 세부조각(細部彫刻)이 우수하며, 아름다운 것인데 부분적(部分的)으로 설명(說明)을 하면 다음과 같다.

옥개석(屋蓋石) 상면(上面)에는 낙수면(落水面)이 있고, 개와를 덮은 개와골이 나타나며, 지붕 끝에는 암막새와 숫막새를 표현(表現)을 하였다.

그런데 숫막새 중앙에는 자방(子房)을 두고 8엽(葉)의 연화문(蓮花文)을 장식(裝飾)하였으며, 암막새는 주연(周緣) 상(上) 하단(下端)에 한줄씩 선(線)을 돌출(突出)이 되게 넣고 있다. 이렇게 사실적(事實的)으로 표현(表現)한 것은 통일기(統一期)와 고려초(高麗初)에서 조성(造成)된 것을 볼수 있으나 지붕 끝에는 이렇게 표현(表現)한 것은 유일한 예(例)이다.

그리고 옥개석(屋蓋石) 상면(上面) 팔우(八隅)에 우동(隅棟)을 표현(表現)한 마루 중앙에는 숫기와 한 줄을 엮고 끝에 막새와로 덮었다.

또 목제가구(木製架構)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으로 하면(下面)에 부연(浮緣)과 연목(緣木)을 표현(表現)했는데 부연(浮緣)은 사각형(四角形)의 서까래로 사용(使用)하였다. 연목(緣木)은 상, 하(上, 下)가 길고 폭(幅)이 좁은 타원형(橢圓形)이며, 부연(浮緣)과 연목(緣木)은 각면(各面) 13본(本)이 같은 수이며, 모퉁이의 수법(手法)은 선자형(扇子形)이 아니고 중앙의

삼본(三本)만 평행하고 길고 좌우에 오본(五本)은 간격을 벌리며, 퍼져나간 처마의 공간(空間)을 적당히 처리(處理)하였다.

탑신(塔身)에 표현(表現)된 목조가구수법(木造架構手法)은 목조건물(木造建物)에서 보듯이 「엔타시스형(型)」이 강한 원형기둥이 있고, 내곡(內曲)된 주두(柱頭)가 놓여 있고, 각기둥 사이에는 접시 받침이 있다.

주두(柱頭) 사이에는 창방을 짜 돌리고 다시 그 아래 약간의 공간을 두고 인방(引枋)을 꿰었다. 인방(引枋) 아래 기둥 좌우에 벽선을 세우고 기둥아래로 하방(下枋)을 표현(表現)했다. 중앙에는 문비(門扉)를 표시(表示)하고 자물쇠를 달고 있는데 자물쇠는 모양을 기면(鬼面)을 조각(彫刻)하였으며, 팔각원당(八角圓堂)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하대석(下臺石)에는 아래쪽에 구름무늬가 있고 윗쪽에는 사자(獅子)를 조각(彫刻)하고 상대석(上臺石)에는 양연(仰蓮)위에 육각대석(六角臺石)이 있고, 이중(二重)으로 조각(彫刻)한 안상내(眼像內)에는 가릉빈가(迦陵頻伽) 주악상이 있으며, 탑신(塔身)을 받는 부분에는 연꽃무늬가 둘러져 있다. 그 위 탑신석 각면(塔身石 各面)에는 강(強)한 볼륨으로 신장상(神將像)을 조각(彫刻)하고 남은 두개의 면(面)에는 각기 다른 방향으로 꿰어 얹은 모습으로 조각(彫刻)된 비천(飛天)이 조각(彫刻)되어 있다. 또 천정 부분에도 천인상(天人像)과 향로(香爐)를 조각(彫刻)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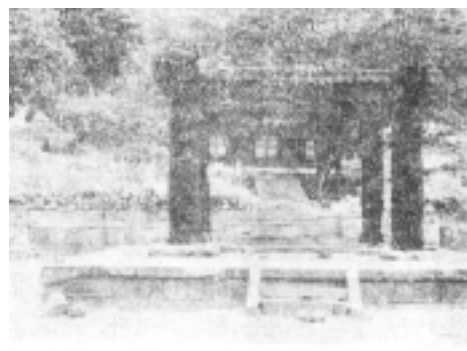
아마도 조각(彫刻) 예술작품(藝術作品)이 한 곳에 모여 있는 느낌을 주는 듯한 우수한 작품(作品)이다.

參考文獻

- 新羅石造浮屠研究：鄭永鎬
- 新羅澈鑿禪師塔과 塔碑에 對한 考察：金和英, 白山學報 第9號
- 雙峰寺 大雄殿 上樑文(三層殿)：申榮勳 考古美術 第1號~100號
- 雙峰寺通信(一), (二), (完)：申榮勳
- 澈鑿國師浮屠의 木造樣式：申榮勳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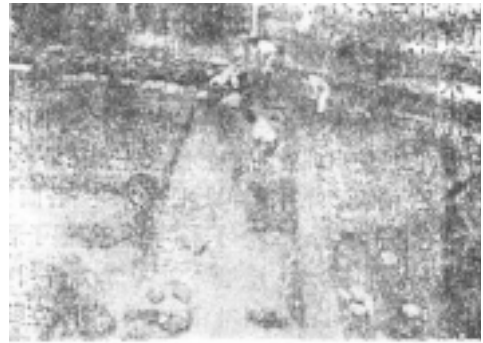
〈사진 5〉



〈사진 6〉



〈사진 7〉



〈사진 8〉



〈사진 9〉



〈사진 10〉



〈사진 11〉



〈사진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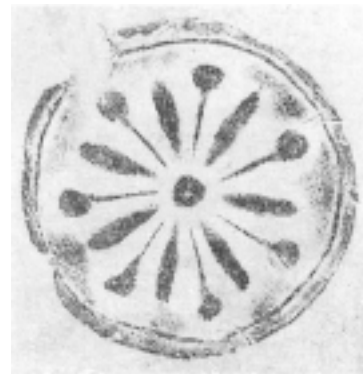
〈사진 13〉



〈사진 14〉



〈사진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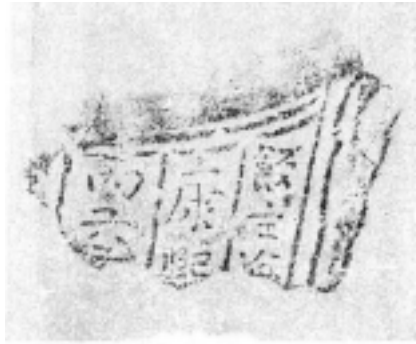
〈사진 16〉



〈사진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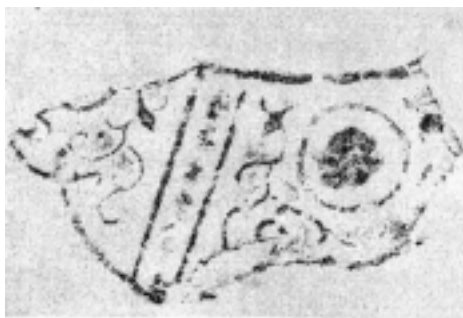
〈사진 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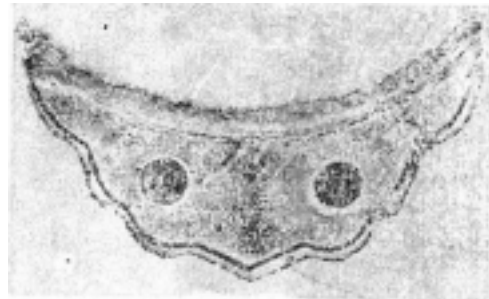
〈사진 18〉



〈사진 19〉



〈사진 20〉



〈사진 21〉



〈사진 22〉



〈사진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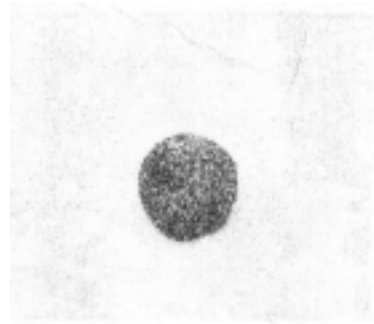
〈사진 24〉



〈사진 25〉



〈사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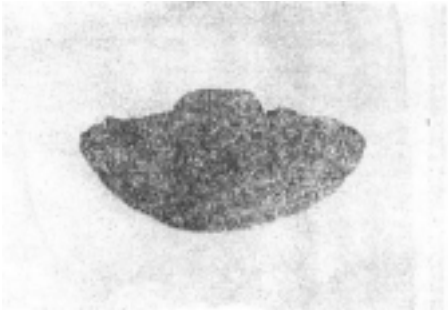
〈사진 27〉



〈사진 28〉



〈사진 29〉



〈사진 30〉



〈사진 31〉



〈사진 32〉



〈사진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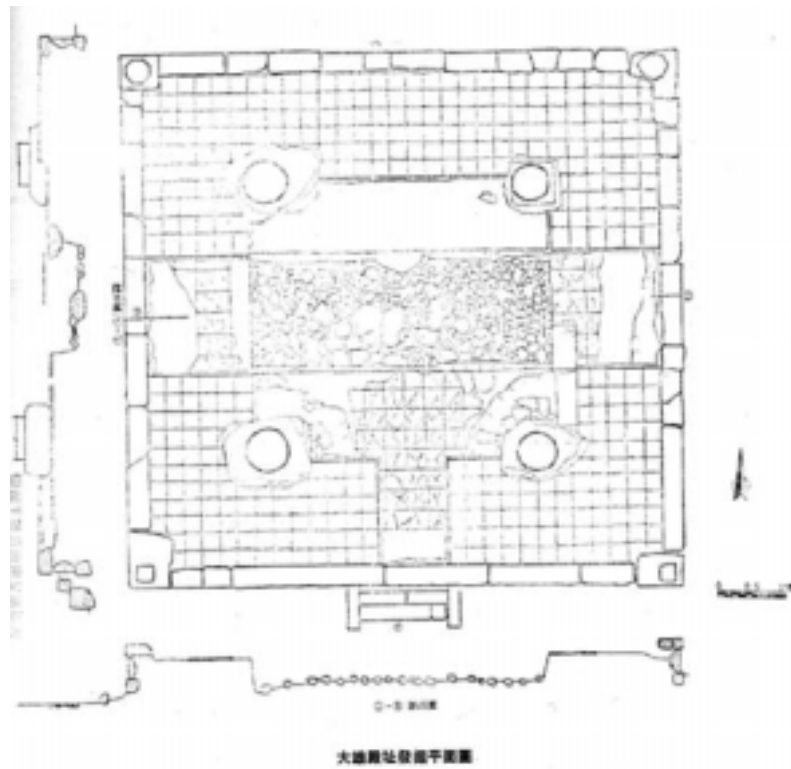
〈사진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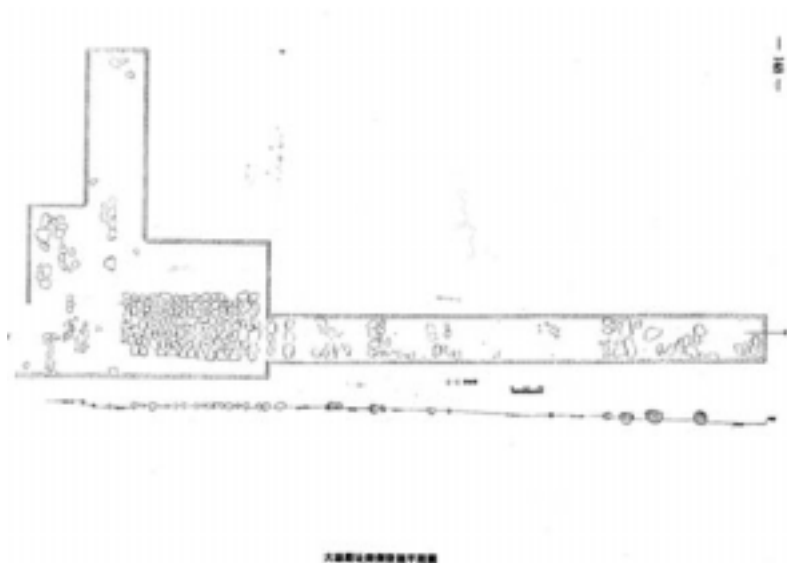
〈사진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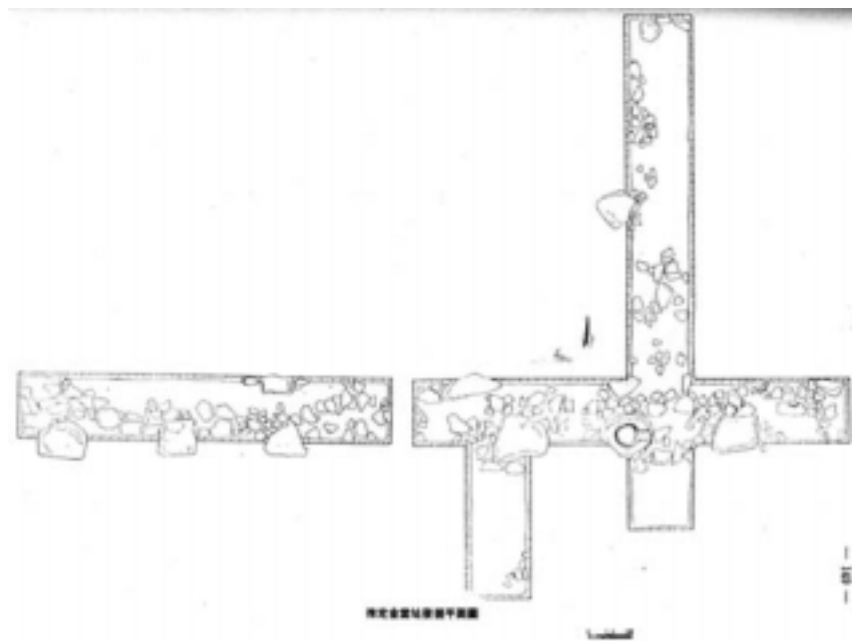
〈사진 36〉



대웅전지발굴평면도(大雄殿址發掘平面圖)



대웅전지남측발굴평면도(大雄殿址南側發掘平面圖)



추정금당지발굴평면도(推定金堂址發掘平面圖)